고이도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고참과 신참. 고참이 일일이 낙지 구멍을 보는 법부터 삽질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가르친다.

뭍과 가깝지만 묻혀있는 섬

젊은이의 미래 드러나는 섬

매화도와 마산도를 잇는 잠수교.

압해도~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한창 공사중이다.

'블루오션' 다도해 <34>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매화도·고이도

압해면 2.8㎞ 거리…송공항 터미널서 10㎞ 넘게 우회
썰물땐 마산도 등 주변 섬들과 잠수교 등 노둣길 통행
드넓은 갯벌에 반지락 종패 파종 등 '먹거리' 찾기 분주

신안군 압해면에 속해 있는 매화도와 고이도는 뭍과 매우 가깝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 눈 앞에 신안군청이 있는 압해면이 펼쳐져 있지만 압해면 송곡항에서 하루 3~4차례 배편만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자주 갈 수 없는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10월 5일 취재진은 송곡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명 '쌕쌕이' 재건호(선장 고재인)에 올랐다. 쌕쌕이는 선외기, 즉 엔진이 선체 밖에 설치된 선박으로, 130마력에 시속이 최고 40㎞까지 나온다. 가을바다를 가르듯 거침없이 15분만에 매화도에 다다랐다. 사실 매화도는 압해면과 직선거리는 2.8㎞에 불과하지만, 송공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 현장을 지나 10㎞를 넘게 돌아가야 한다.

'가깝지만 먼' 매화도 선착장 인근 그늘에서는 주민 5~6명이 모여 새참에 맥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되고 외로운 섬에서의 스트레스를 주거니 받거니 술잔에 풀어내는 듯했다. 매화도의 '마당발'로 통하는 박승일(59)씨가 말을 건넸다. 그는 마산도 출신이다. 매화도와 마산도는 수심이 4m 이하로 내려가면 드러나는 잠수교로 연도돼 있다. "지난 추석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수교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귀성 차량 행렬이 죽 늘어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만조일 때 가장 많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리였다. 눈 앞에 고향을 두고 못 들어가는 귀성객들은 매년 반복되는 불편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게다가 자동차 한 대가 겨우 갈 수 있는 이 잠수교는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 보수도 시급하다.

매화도와 잠수교로 연결된 마산도와 황마도, 바로 옆 병풍도를 중심으로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등은 모두 하나의 무리처럼 연결돼 있다. 갯벌 위에 돌이나 나무로 노둣길이 놓여 있어 썰물이면 하나의 섬이 되는 것이다. 신안의 섬에는 유독 이 노둣길이 많다.

매화도의 사방은 갯벌이다. 이들 갯벌에 사는 게, 짱둥어의 향연을 바로 눈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낙지를 잡는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방파제 등 인공시설이 들어서면서 갯벌이 물컬물컹해지고, '골'이 깊게 패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에 나가 갯벌 위에 불빛을 비춰 낙지를 잡는 회낙지 방식은 점차 줄어들고 삽으로 잡는 가래낙지, 주낙으로 잡는 주낙낙지 잡이가 대세가 되고 있다.

매화도에서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무기계약직 조원근(36)씨는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나온 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도했다가 17년을 섬 총각으로 지내고 있다. 안내를 맡은 그는 "과거에는 주민 수가 7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40명까지 줄었다"며 "갯벌이 평평하고 단단했을 때는 밤에 나가 횃불이나 손전등으로 쉽게 낙지를 잡았었다"고 회고했다.

매화도라는 명칭은 섬의 형태에서 나왔다. 목포의 유달산(228m)보다 6m 높은 234m의 장군봉이 한 가운데 솟아 있고 나머지 산들이 그 주위를 감싼 것이 공중에서 보면 마치 매화꽃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군봉을 올라볼 수는 없었다. 등산로 정비에 나섰던 가난한 신안군이 고작 1년 예산을 지원하고 포기한 것이 그 원인이다. 매화 1구에 보건소, 파출소, 분교 등 공공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수령 500년 이상인 은행나무가 서 있다. 주변 주택들은 살아야 할 주민들이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나 경로당으로 탈바꿈했다. 안내를 하던 조씨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우편배달부에게 인사를 건넸다. 매화도 우편배달부 조영대(65)씨는 조씨의 아버지였다.

섬 곳곳에 방치된 자원들도 많았다. 수령이 350년 이상인 팽나무 등 관심을 받지 못한 섬의 자원들은 보호되지도, 부각되지도 못한 채 시간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섬의 불편도 여전하다. 특히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섬 주민들은 뭍의 주민에 비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조씨는 "몇 달 전 사래 걸린 어르신에 대한 응급 조치가 늦어져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씨를 비롯한 매화도의 30·40대 청년 10여명은 사방에 가득한 갯벌에 반지락 종패를 뿌릴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섬의 미래를 찾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매화도에서 고이도는 쌕쌕이로 10분 거리다.

바로 앞이 무안군 운남면 신월리로, 생활권은 무안이다. 박인기(57·6급) 출장소장의 지시로, 기간제 근로자인 나선민(여·23)씨가 섬 안내를 맡았다. 그녀는 조부모와 함께 고이도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섬을 떠났다가 스무살에 다시 귀도했다. 나씨는 "고이도에서 마을 어르신 손에 자랐다가 이제는 어르신들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미소지었다. 주민 민원처리에 행정업무 보조, 스마트폰 사용법 안내까지 그녀의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간다. 주말에는 목포, 광주에 나가 스트레스를 풀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는 부지런한 섬 처녀다.

고이도에는 전입 인구가 계속 늘면서 인구가 307명으로 늘었다. 낙지와 소라가 유명하고 과거 염전을 활용한 새우양식장이 많다. 섬 출신이나 그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주말이면 고이도에 들어와 고사리를 캐거나 갯벌에서 반지락을 잡는다고 한다. 고이도는 주로 농로를 시멘트 포장해 길이 좁고, 슈퍼마켓이나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외지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국시대 또는 후삼국시대 축성돼 왕건의 숙부인 왕망이 군사를 이끌고 주둔했던 왕산성지가 있으나 복원사업에 필요한 40억원이 없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 사람들 '신안 마당발' 마산도 박승일씨

"철부선 늘어도 불편하지만 6남매 키워 낸 고마운 섬"

마산도 출신인 박승일(59)씨는 신안 마당발로 통한다. 섬 일이라면 무조건 나서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 20대 후반 다시 섬으로 내려왔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자녀들을 모두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산도에 내려와 김양식과 낚시, 농사를 하며 6명의 자녀를 모두 키워냈다. 여섯째인 막내아들은 귀도한 후 30살 되던 해에 낳았다. 그는 "5명이나 되는 딸들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들 나이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웃었다.

선글라스에 아줌마 바지를 입고 갯벌과 논밭을 오가는 그는 "철부선이 과거에 비해 자주 다니지만 여전히 섬에서의 삶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상수원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수돗물을 못 쓰거나 잠수교가 잠겨 지척에 있는 매화도를 바라만 볼 때도 많다. 하지만 '자식 농사'를 짓게 해준 섬에 고마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고 그는 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